

택견(태권) 단체의 품밟기 원리에 관한 연구

김영만(숭실대학교) · 김창우(용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택견 단체의 품밟기 원리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각종 문헌고찰과 질적 사례연구인 인터뷰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택견 품밟기의 원형 복원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밟기의 동작에 대해서 한국의 3단체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연맹, 한국택견협회는 ‘굽실’, ‘능청’, ‘으쓱’, ‘우쭈’ 등의 원리로 표현하고,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는 ‘굽슬르기’와 ‘허리재기’의 원리로 표현한다. 둘째, 한국의 3단체는 무형문화재 등록 이전에 조사된 예용해(1964), 태권도지(1971), 김명곤(1977) 등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굽실, 능청, 우쭈 등의 내용을 인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셋째, 품밟기는 주로 3박자의 리듬으로 움직이지만 밟기의 걸음새는 2박 또는 4박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넷째, 한국의 3단체는 품밟기의 굴신동작원리인 오금질을 이용하지만, 위대태권은 파워 존(Power zone)인 살과 엉덩이를 이용한다. 여기서 오금질보다 굽슬르기는 더 강한 타격력을 발현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경기규칙에 따라 품밟기의 목적이 상이하다. 결련택견협회는 하단 공방의 목적으로, 대한택견연맹은 느저르기와 대접의 목적 등이다. 여섯째, 품밟기는 ‘힘빼기의 원리’이다. 일곱째, 품밟기는 공방을 통해 상대방부터 승리하기 위한 걸음걸이다. 여덟째, 품밟기의 원리 중 하나인 오금질과 굽슬르기는 각종 건강운동에 도움이 된다. 차후 송덕기의 품밟기와 관련된 경기규칙과 건강 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송덕기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전승자의 구술과 동작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서 추가적이고도 면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 결과물은 원형복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택견, 태권, 밟기, 품밟기, 무예

“본 논문은 2013년도 추계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내용임.”

* taekkyon151@empal.com

1. 서론

송덕기(宋德基, 1893-1987)는 택견에 있어서 조선과 현대를 잇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그의 택견기술은 원형의 준거가 되고 있다. 택견은 무형문화재의 지정으로 고유한 전통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용해, 1973). 그러나 현재 택견 단체들마다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원형논쟁을 둘러싸고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도인은 전통을 수용하고 특정무도의 관습과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또한 무도에서 전통에 대한 태도는 무도인의 정체성과 자아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김창우 외 3명 역, 2012: 92).

인간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으로 걷고 달리게 되는데, 걸음과 관련된 가장 마지막 단계이자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격투에 사용되어지는 보법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 보법은 격투나 무술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택견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택견의 가장 근본이자 핵심원리인 품밟기는 ‘나무의 뿌리’와 같다. 뿌리가 튼튼해야 거목이 될 수 있듯이, 송덕기는 한결같이 “품밟기는 택견의 전부다”(고용우 인터뷰, 2013.10.10; 도기현, 2007; 이용복, 1997)라고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소 1년 이상 품밟기를 밟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품밟기는 밟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법이다.

검도나 복싱에서도 보법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택견도 품밟기의 숙련 여부가 겨루기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택견’이란 용어는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한

국에서 활동 중인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며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고용우는 인터뷰(2013.10.10,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피숍)에서 “할아버지(고용우는 송덕기를 할아버지로 지칭했다. 이하 동일)는 택견이나 탁견이라고 하지 않고 태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라는 진술과 단체의 명칭을 존중하여 ‘택견’과 ‘태권’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차후 명칭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¹⁾

“1982년 오장환의 문화재 신청과정에서는 신한승의 택견 학습체계가 제출되었는데, 송덕기 택견과는 다소 상이한 학습체계였으며 이는 신한승에 의해 최초로 명문화와 체계화되었다”(박영길, 안정덕, 2008). 그래서 신한승은 문화재 신청요건에 맞추어 정리한 수련체계는 보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를 계기로 수련체계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수련체계는 택견의 학습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수련방향에 긴밀한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장기적인 택견발전과 전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형을 근간으로 한 과학적인 수련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택견은 문화재라는 틀을 넘어 1998년 국민생활체육회 정식가맹과 2007년 대한체육회 정식가맹 단체로 승인됨으로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국민들의 생활 속에 한층 다가가게 되었다.

아울러 전통무예 택견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체육과 예술을 포함한 학술 전반에 전이됨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에서 한국전통의 정신과 맥으로 계승,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택견의 원형 시비는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택견

원형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자 책무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택견 원형을 토대로 재창조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영만, 김창우, 2014). 또한, 택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련체계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김영만, 2010).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한택견연맹의 이용복(1990; 1997), 한국택견협회의 정경화(2002), 결련택견협회의 도기현(2007)이 있고, 김정윤(2002)의 ‘태권’, 박종관(1995)의 ‘전통무술 택견’ 등이 있다. 또한 품밟기의 운동학적 분석으로 장경태, 정태운(2006), 오성근, 류지선(2010) 등이 있으며, 그리고 품밟기의 동작원리에 관한 연구로 김영만, 오세이(2010), 김영만(2012)의 연구가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3단체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송덕기로부터 1969년부터 1985년까지 가장 오랜 기간 택견을 전수 받은 고용우가 설립한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이하 위대태권으로 명명함)”(김영만, 김창우, 2014)의 선행연구는 김영만, 김창우(2014)의 ‘택견 단체의 품밟기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한편으로 ‘위대태권’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택견 단체의 품밟기 원리에 관한 비교 연구를 위해서 각종 문헌고찰과 질적 사례연구인 인터뷰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하여 고용우로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013년 9월 11일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내러티브 면접법을 실시하여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서 범주화하였다. 이는 택견 품밟기의 원형 복원에 일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품밟기 원리의 비교

택견의 품밟기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굵실, 능청, 으쓱, 우쭐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굵실르기와 허리재기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덕기에 관한 최초의 기사인 한국일보 예용해(1964)의 ‘續人間文化財’ 부제와 예용해(1973: 142)의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02호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용해(1964)는 품밟기에 관한 최초의 기록에 택견의 동작을 “우쭐우쭐 몸을 스쳐 놀다가는…택견에서 몸을 능청대며 는지르는 것도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品字로 놓는다는 約束…”으로 ‘능청’과 ‘우쭐’에 대해서 적고 있고, 택견의 밀어 차는 기법인 는지르기를 능청(허리재기)을 통해 실시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발질에서 능청동작은 뱃심을 내미는 아치의 형태이며, 상체를 뒤로 젖히는 반작용의 힘이 발질에 실린다. 엉덩이의 회전으로 능청이 이루어지고 신전의 정점인 단전에 힘이 절로 모이는 자세로 파워 존을 사용하게 된다(김영만, 2012).

이석호(1971)는 “첫째 서로 맞서서 대련을 준비하는 자세는 『품』(品)이라고 하며 품이 움직이면 『굵실』이라고 한다. 계속 움직일 때는 『굵실굵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간 태권도지(1973)에는 “상대쪽은 굵실(복싱의 기본 「스텝」에 해당)을 넣은 후…”로 굵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김명곤(1977: 143)도 택견의 몸짓을 ‘굵실’, ‘능청’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서는 자세를 원품, 좌품, 우품으로 나누고, 발을 이리저리 옮기며 몸을 굵실대고 허리

를 능청거리는 품밟기를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게 했다”고 했다.

굳실’과 ‘능청’은 용수철의 원리로 허실(虛實)의 원리를 발현하여 효과적인 발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김영만, 2012).

이러한 최초로 송덕기의 기사를 기록한 예용해(1965)와 이석호(1971) 등의 내용은 차후 택견 단체나 연구자에게 택견의 몸짓을 표현하는 주요한 단초가 되어 현재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전술한 굳실과 능청, 으쓱과 우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굳실거리다(Wriggle)’는 “구불구불하게 물결을 이루며 부드럽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이며, ‘굳실굳실’은 벌레 따위가 느리게 조금씩 자꾸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Daum 국어사전, 2014; 김영만, 김창우, 2014)로 표현하고, ‘능청거리다’는 “탄력 있게 자꾸 흔들리다”로 설명하고 있으며 ‘능청능청’은 “가는 막대기가 줄 따위가 탄력 있게 자꾸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우쭐거리다’는 “몸이 큰 사람이나 동물이 힘 있게 춤추듯이 자꾸 움직이다”, ‘우쭐’은 “몸이 큰 사람이나 동물이 힘 있게 춤추듯이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고, ‘으쓱거리다’는 “자꾸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다”, ‘으쓱’은 “갑자기 어깨를 쳐들어 보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다(Daum 국어사전, 2014; 김영만, 김창우, 2014). 이러한 형용은 마치 춤을 추는 모습과 흡사하다. 그러면 이러한 표현은 택견 단체에서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결련택견협회

도기현(1995: 5; 2007: 17, 38, 50, 51 111, 120)

은 택견의 동작들을 굳실, 능청, 우쭐로 표현했으며, ‘무릎의 굳실거리는 오금질’, ‘3박자의 탄력’, ‘힘빼기’ 등의 움직임으로 설명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견의 동작들은 ‘굳실굳실’ 되거나 ‘우쭐 우쭐’거리면서 부드럽게 곡선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몸짓은 우리민족 고유의 3박자의 탄력(彈力)에 바탕을 두고 있어…엄청난 힘(뱃심)으로 상대를 일시에 절명케 할 수도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무예이다. 택견의 동작들은 무릎의 굳실굳실거리는 ‘오금질’을 바탕으로 …송덕기 택견의 기술 구사는 굳실대는 오금질과 가까운 거리에 서의 교전을 위한 것…품밟기를 바탕으로 하는 몸짓의 특성을 얘기하면 오금질의 굳실거림과 자연스러운 편안함…(도기현, 2007).

힘을 빼고 능청거리는 동작과 오금의 연속적인 굴신을 택견 동작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몸의 힘을 빼고 능청거리듯, 또는 흐느적거리듯 움직이는 택견의 동작은 세계에서 가장 부드러운 무예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택견은 다리의 중심인 오금(무릎의 뒤쪽)을 끊임없이 굴신(屈伸)시킴으로써 온몸의 힘이 빠져 몸 전체가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오금의 연속적인 굴신으로 택견은 자연스럽게 온몸의 힘을 빼는 극단적인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도기현, 2007: 51).

김영만(2012)도 힘빼기의 원리에 대해서, “인체의 근육을 경직시켜서 분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최적의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 택견이 타 무술과 다른 점은 바로 전신에 힘을 빼고 분절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움직이도록 동작원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고 했다.

도기현(2007: 119)은 “택견에서 왜 품밟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품을 밟음으로써 발바닥의

지압효과, 오금의 탄력 증대, 하체 근육의 강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아랫배에 두드러진 뱃심을 쌓는 일종의 ‘양생건강운동(養生健康運動)’을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품밟기는 굽실거림을 통하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 전체의 움직임의 흐름을 잡아주는 택견 기본적인 몸 사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셋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상대와의 공방에서 하체에 대한 공격 및 방어를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상대가 하체를 공격하지 않고 얼굴만 공격해 오는데 품을 밟으면(다리를 계속 좌우로 바꾸면서 수비를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셈이다. 상대의 하체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리를 움직여 품을 밟는 것이다. 또한 하체 공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도기현은 특히 무릎의 굽실거리는 오금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으며, 3박자의 탄력, 힘빼기 등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과연 송덕기가 주장한 택견의 원리로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원리가 경기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송덕기의 택견의 원리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기현(2007: 111)은 “숙련된 품밟기는 상대의 공격, 특히 하체 공격을 아주 용이하게 피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어시스템이다”고 설명했다.

도기현(2007: 102)은 “송덕기 스승님께서 ‘품밟기는 택견의 전부다’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품밟기’가 택견의 모든 기술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어 체중의 이동이나 자세, 기술의 강약(強弱)뿐만 아니라 동작의 멋까지 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진다”라고 했다.

택견의 원리 중 중요한 허리재기가 단순히 “허리재기는 몸풀기로 실시하고 있다”(도기현, 2007: 102)는 것으로 보아 허리재기에 대한 중요성은 배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택견배

틀’경기에서 능청과 허리재기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2. 대한택견연맹

이용복(2005: 54)은 품밟기의 움직임을 ‘굽실굽실’, ‘능청능청’, ‘우쭈우쭈’, ‘으쓱으쓱’으로 표현했다.

택견의 동작을 표현할 때 굽실굽실, 능청능청, 우쭈우쭈, 으쓱으쓱 등으로 말한다. 이러한 토속적인 형용사를 적용하여 품밟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굽실굽실: 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다리와 무릎의 가벼운 굴신운동. ② 능청능청: 양 무릎을 펴고 아랫배를 내밀면서 허리를 활처럼 탄력적으로 휘는 모양. ③ 우쭈우쭈: 발을 바꾸어 밟거나 내디딜 때 몸 전체의 율동운동. ④ 으쓱으쓱: 품을 밟으며 어깨를 치들며 머리를 부러 뺏내는 모양. 위의 네 가지 형용사는 택견의 운동 원리를 함축성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 동작이 연속되고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능질거리는’ 기법이다.

“품밟기가 공간이동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고, 굽실거리고 능청대며, 우쭈우쭈, 으쓱으쓱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은 택견경기의 원리를 구성하는 대접의 규준성과 능질거리는 기법의 호혜성에 의해 합목적적 수단화한 결과라고 생각된다(이용복, 2005: 50)”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용복은 택견 품밟기의 원리를 경기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밟기는 본질적으로 종합격투기에서 필요한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걸음걸이다. 경기나 실전에서 밟기의 목적은 상대방부터 승리를 위한 것이다. 선수의 스타일에 따라 편한 자세로 발을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종합격투기 등에서 경기규칙에 강제적인 밟기는 찾아볼 수 없다.

검도나 복싱에서도 발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연습한다. 검도에서 머리치기의 승부를 좌우하는 것은 발의 속도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고 복싱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허(虛)와 실(實)의 빠른 움직임의 원리이다(김영만, 2012).

3. 한국택견협회

한국택견협회의 몸짓을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인 오장환(1991), 이승수(2008; 2011; 2012), 정경화(2002), 정재성(2005), 정만영(2000)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신한승의 기록과 한국택견협회의 품밟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승수(2008: 59, 61; 2011; 2012, 재인용)의 논문에서 택견의 몸짓을 표현하는 내용의 자료에, 신한승의 심사채점표에 굵실, 능청, 우쭐, 허리재기, 뱃심내기, 배내밀기 등의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굵실, 허리재기, 뱃힘주기(심내기) (1973년 7월 31일. 본대회기 신한승), 배내밀기(1976년 12월 5일, 1981년 5월 26일, 1982년 12월 17일, 1985년 12월 22일 심사채점표. 이승수, 2012). 택견은 굵실대며 능청거리는 우리 민족 특유의 몸짓(1973년 11월 27일. 신한승이 권0욱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택견은 몸으로 굵실대고 발로 품자를 밟으며 능청거리는 우리 민족 특유의 몸짓(1977년 10월 2일. 신한승이 권0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이승수, 2008: 59), 태권, 한국의 탈춤 등 '능청거리며 굵실대며 우쭐우쭐하는 곡선의 몸짓(1981년 6월 25일. 신한승이 예용해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1973년 택견 수련체계(1973년 5월 2일), 다섯 가지 품 및 굵실 일으키(傳習), 1978년 택견 수련체계, 활갯짓 바로 들며 품밟기(굵실, 굵실), (이승수, 2011)

〈사진 1〉은 신한승이 택견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육필로 정리한 기록 가운데 하

나이다. 1985년경 송덕기가 신한승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을 고용우에게 전해준 내용의 사본이다. 고용우는 인터뷰(2013. 10.10, LA 커피숍)에서 “신(한)승 선생님이 정리해서 할아버지께 준 수련 과정인데 등글게 말아서 실로 묶어서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줬어요”라고 술회했다. 〈사진 1〉의 내용을 보면, 1973년~1981년경에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송덕기의 진술을 토대로 나름 정리한 것으로 위의 이승수가 게재한 신한승의 언급내용과 유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예로 ① 굵실굵실, ② 허리재기, ③ 배에 힘주기(아랫배에 힘주기) 등이다.

정경화(2002: 33)는 품밟기란 “택견의 품밟기는 우리의 전형적인 가락 중에서도 굵실굵실하는 균형이 깨진 듯한 3박자로 되어 있다”고 했고, 오장환(1991: 16-17)은 “품밟기란 택견의 기본적인 발놀림으로서 몸짓을 익히는 데 가장 중요한 보법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택견의 품밟기는 우리의 전형적인 가락 중에서도 굵실굵실하는 균형이 깨진 듯한 3박자로 되어 있다”라고 굵실굵실과 3박자의 품밟기의 리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재성(2005: 90)은 “품밟기는 무릎관절의 탄력을 이용해 굵실대며...탄력을 이용해 동작(공방)을 이루어 내기 때문이다”라고 품밟기의 몸짓을 ‘굵실’로 표현하고 공방을 위한 것이라 했다.



〈사진 1〉 연대미상 수련과정(신한승)

또한 정재성(2005: 94-95)은 “품밟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택전에서 품밟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힘의 원리이다. 품밟기란 삼박자의 리듬을 타면서 굵실대는 택전 특유의 보법(스텝)으로, 품밟기에서 가속도를 내려면 힘을 빼야 한다. 이는 곧 모든 무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힘을 빼는 원리’를 익히는 과정인 것이다. 두 번째, 품밟기는 굵실대으로써 신체의 탄력을 높이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품밟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세 박자의 리듬이다.

또 정만영(2007)도 ‘굵실’의 중요성에 대해서 “택전의 몸짓을 배우기 위한 첫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부드럽으면서 섬세한 리듬감이 있어 굵실대며 움직이는 보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환언하면 위의 3단계는 예용해(1964)와 김명곤(1977)의 선행기사에서 기록한 굵실, 능청, 우쥘 등에서 제시한 형용사를 참고로 하여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행, 김상철, 김창룡(1997: 309)는 “송덕기의 택전 보유 기술에 비하여 신한승이 정리한 택전은 기술의 양적 증가와 수련체계의 외래 무예적 구성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민속학적으로나 무예적 상식으로 볼 때에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무예 지식이 없는 몇몇 문화재 위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여 문화재로 인준되었다”고 지적했듯이, 택전을 직접 배웠거나 전문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의 시각에 비추진 택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예로 마당지의 기자인 안희웅(1984: 145)은 “표현한 필자 나름의 형용해 본 글이다”라는 표현처럼 기자들의 눈에 비친 택전의 모습을 송덕기가 택전의 몸짓을

‘굵실’, ‘능청’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에서 빚어진 현상이 아닌지 유추해 본다. 안희웅(1984: 145)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발을 어깨넓이로 옆으로 벌려 원품을 밟는가 하였더니 왼발 오른발이 한 발 앞으로 좌품 우품을 밟고...팔다리의 움직임에 맞추어 굵실굵실 우쥘우쥘, 흥겨운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듯 부드럽게 움직이듯... 이상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 기능 보유자 신한승 씨의 택전 모습을 필자 나름으로 형용해 본 글이다.

또한 신현식(2008, 중앙일보, 택전 원류 LA에 있다.)은 “굵실굵실, 우쥘우쥘거리는 추임새는 부드럽다기보다는 호느적거리는 춤을 추는 듯한 몸동작이...”라고 기사를 기록했는데, 이 기사 역시 고용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기사를 토대로 작위적으로 기록했다. 고용우는 인터뷰(2013.10.10. LA 커피숍)에서 “기자에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태권은 출렁출렁 하는 표현만 하면 되는데 아마 기존에 자료를 보고 기록한 것 같아요. 아마 옛날에도 그래서 굵실이니 우쥘이니 나온 것 같아요”라고 했다.

4.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의 품밟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고용우의 인터뷰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품밟기의 몸짓은 ‘굵슬르기’와 ‘허리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우는 인터뷰(2013.10.10,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피숍)에서 “택전의 품밟기를 굵실과 능청거리면서 합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할아버지는 능청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품

밧기를 굽실과 능청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굽슬르기와 허리재기가 있어요. 굽슬르기는 시냇물이나 바닷물이 출렁 출렁하는 것처럼 리듬을 타면서 끊어짐이 없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굽슬르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몸을 출렁 출렁해야 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끔 품밧기에서 허리재기를 했어요. 밧길질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재기를 해야 돼요. 아마 굽슬르기를 보고 굽실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허리재기를 보고 능청이나 뱃심내기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밧기를 3박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2박자나 4박자가 되기도 해요.

위에서 진술한 고용우의 굽슬르기에 대한 표현이 계간 태권도지(1973)의 ‘銀髮의 태권도인 송덕기’라는 부제에 실린 기사에서 아주 적절하게 택견의 몸짓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을 앞으로 내어 차는 동작이 파도(波濤)치듯 물결이 일듯, 출렁 출렁 움직이고 「리듬」을 탄 음률(音律)과도 같이 경쾌무비(輕快無比)의 행위가 연속됨으로써 공방에 유리하고 그 위력도 힘을 축적하고 힘을 정점으로 이끄는 동작의 연속을 이룸으로써 파괴력과 명중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김정행, 김상철, 김창룡(1997)은 “무예는 자연과 우주의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들은 동물행위, 파도 모양, 리듬의 모양을 이용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가장 자연스런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무예동작이기도 하며 그 가운데 적절한 타이밍을 맞춘다거나 혹은 힘의 안배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 태권도지(1973)의 표현은 가감 없이 택견의 동작을 자연과 빚대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상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연맹, 한국택견협회(이하, 3단체로 명명함)는 품밧기의 몸짓을 굽실, 능청, 우쭈 등

의 방법으로 3박자로 시행되고,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는 굽슬르기와 허리재기를 통해서 2박자, 3박자, 4박자로 밧기가 이루어진다. 즉 3단체의 굽실이 위대태권의 굽슬르기에 해당되며, 능청, 뱃심내기, 배내밀기는 허리재기이다.

대한택견연맹에서 품밧기에서 ‘능청’을 기본적인 몸짓으로 채택한 것은 밧차기 위주의 경기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만약 경기 규칙에 손을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면 기본적 몸짓은 변하게 될 것이다. 즉 규칙이 경기를 지배하고 규칙에 따라 경기의 모습은 달라진다. 그 예로 태권도가 경기화 되면서 보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택견은 경기와 무예적인 목적이 공존한다. 중국에는 무예가 바탕이 되어 경기는 나중에 개발되는 것이다. 놀이나 경기이기 이전에 무예의 관점에서 택견의 접근이 필요하다.

요즈음 3단체의 수련과정에 시행되고 있는 품밧기가 실제 경기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현행 3단체 품밧기의 효용성과 적용성을 나타내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경기 규칙과 품밧기가 조화롭고 작위적이지 않으며 매끄럽게 경기가 진행된다면 그 품밧기는 무난하며 최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단체 모두 수련과정의 품밧기와 경기에서의 품밧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실제 경기에서 경기와 무관한 품밧기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수련과정의 품밧기를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품밧기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지질학자 제임스 허튼이 언급한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는 동일과정의 법칙처럼 현재 경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품밧기의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송덕기의 품밧기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3단체의 수련과정에서는 과도하게 굽실과 능청 그리고 품밧기에서 바닥으로부터

높게 발을 들고 밟기를 한다. 즉 발이 바닥으로부터 높게 뜨는 것은 무게중심이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이므로 유술의 기술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요즈음 경기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밟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제1회 태권경기회에서 송덕기는 연로한 탓도 있겠지만 발을 자근자근 밟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에게 조금의 빈틈도 보이지 않기 위한 것이다.

몸의 움직임을 3단계는 무릎의 오금질을 기반으로 힘이 생성된다고 설명하는 반면에 위대태권은 엉덩이의 굼슬르기로 표현하고 있다.

굴실, 능청, 으쓱, 우쭐거리는 몸짓은 마치 춤을 추는 듯하여 일반인들에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지는 경향들이 있어, 태권이 해학적인 부분만 강조되어 각종 매스컴에서 일부 유머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 단체들의 품밟기에 대한 편견에 의해서 편향된 생각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오금질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금질은 사람의 신체 가운데 무릎 뒤쪽을 일컫는 오금을 활용하는 한국 민속 탈춤의 기본자세로서, 일반적으로 기마자세를 유지하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행동을 일컫는다”(위키백과, 2013)라고 했다. 그 외에 풍물굿 등에도 오금질이 있다. 우리 고유의 박자가 3박자라고 해서 태권도 3박으로만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춤의 영역의 표현과 무예는 그 목적성이 다르다. 춤은 일정한 박자와 리듬을 통해 흥과 신명을 표출하고 즐기기 위한 목적이지만 무예는 전쟁에서 상대를 절명케 하기 위해 강한 파워를 필요로 한다. 품밟기의 목적은 그야말로 상대를 공격하고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걸음걸이다. 품밟기는 주로 3박자의 리듬으로 움직이지만 밟기의 걸음새는 2박 또

는 4박으로 변하기도 한다(문예진흥원 VTR 영상, 1983; KBS 문화강좌, 1984; 제1회 태권경기회, 1985 등). 그리고 상대를 현혹하기 위해서 3박자로 품을 내딛다가 엉덩치기 등으로 엇박자를 만들어 상대의 리듬 변화로 되받기를 하기도 한다(문예진흥원 영상, 1983). 이러한 품밟기는 상대와의 겨루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오금질과 3박자만 태권의 몸짓으로 단언하는 것은 송덕기의 원형적인 몸짓과 괴리를 유발시킬 수 있다. 기존 알려진 품밟기와는 다소 상이하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릎의 오금질과 대둔근의 움직임을 질량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뉴턴의 제2법칙에서 ‘힘=질량×가속도($F=ma$)’라고 했듯이, 무릎의 오금보다 대둔근은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고 출렁 출렁 움직이는 동작은 가속도를 더해준다. 또한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보다 더 빨리 낙하하게 된다. 그래서 품밟기에서 오금질보다 굼슬르기는 강한 타격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송덕기의 다양한 영상에서 머리와 몸을 끊임 없이 상하좌우로 움직이는(bob and weave) 출렁거리는 몸짓을 찾아볼 수 있는데, 상대를 발길질하기 위해서 살(엉덩이)을 떨어뜨렸다가 일어서면서 상대의 복장을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굼슬르기 밟기의 원리를 이용했던 것이다.(국립영화제작소, 1971).

굼슬르기와 허리재기의 핵심은 대둔근과 대퇴사두근 등의 움직임으로 강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지면반력을 통해서 탄력을 얻고 팔로스루의 원리처럼 굼슬르기의 출렁 출렁이는 힘을 진행 방향으로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하게 만들어준다.

그 예로, 골프 드라이브,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등을 할 때 엉덩이를 회전시켜

신체의 질량을 적절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엉덩이의 회전은 복부와 가슴의 근육을 신장시킨다(정철수, 신인식, 2005).

위대태권의 굽슬르기는 힘의 원천인 파워 존(Power Zone)을 사용하는데, 파워 존이란 허벅지, 복부, 허리, 엉덩이의 근육을 말한다. 즉 배부터 허벅지까지의 앞뒤 부위를 말한다. 이 근육들은 인체에서 힘을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품밟기는 신체 각 부위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켜 모든 힘을 공격하는 발끝으로 결집시키는 고도의 신체굴신원리를 담은 몸짓임을 깨닫게 된다. 아울러 최소한의 노력으로 체중과 힘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는 동작원리를 지닌다. 전통적인 우리 몸짓으로서 여타 어느 무술보다도 독특한 몸짓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가운데, 허릿심을 이용하고 공격하는 것은 굽슬르기와 허리재기를 이용해서 공격력의 강화와 몸에 힘을 뺏으로써 스피드를 높이는 등 다양한 신체활용원리들이 담겨져 있다(김영만, 오세이, 2010).

운동역학적으로 강한 파워를 생성하기 위한 대둔근은 파워 존의 열쇠로 보기도 하는데 하체 근력 중 대퇴 사두근과 함께 움직이는 근육 부위이다. 특히 올바른 걸음걸이와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 부위이다. 요즈음 일반인들은 운동부족으로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대둔근이 약해지면서 골반과 허추가 틀어지고 불안전하게 변형된다. 이로 인해 척추 측만증이 많이 발생되기도 한다. 또 여성들이 많이 고민하는 하체비만의 열쇠라고 볼 수 있다. 엉덩이와 배 그리고 허벅지에 살이 몰리는 이유는 근육세포가 적기 때문이다. 근육세포는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라고 비유하면 된다(근육사전, 2013)

III. 결 론

본 연구는 택견 단체의 품밟기 원리에 관한 비교 연구를 위하여 각종 문헌고찰과 질적 사례연구인 인터뷰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그 목적은 택견 품밟기의 원형 복원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밟기의 동작에 대해서 결련택견협회, 대한택견연맹, 한국택견협회는 ‘굽실’, ‘능청’, ‘우쭈’ 등의 원리를 이용하고, 현암위대태권보존연구회는 ‘굽슬르기’와 ‘허리재기’의 원리를 이용한다. 둘째, 한국의 3단체는 무형문화재 등록 이전에 조사된 예용해(1964), 태권도지(1971), 김명곤(1977) 등에서 굽실, 능청, 우쭈 등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우의 인터뷰(2013.10.10, 미국 로스앤젤레스 커피숍)에 의하면 송덕기가 직접 이런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 셋째, 품밟기는 주로 3박자의 리듬으로 움직이지만 밟기의 걸음새는 2박 또는 4박으로 변하기도 한다. 넷째, 한국의 3단체는 오금질을 사용하고, 위대태권은 굽슬르기를 이용한 파워 존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금질보다 더 강한 타격력을 발현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째, 경기규칙에 따라 품밟기의 목적이 상이하다. 결련택견협회는 하단 공방의 목적으로, 대한택견연맹은 논지르기 대접의 목적 등이다. 여섯째, 품밟기는 ‘힘 빼기의 원리’이다. 일곱째, 품밟기는 공방을 통해 상대방부터 승리하기 위한 걸음걸이다. 여덟째, 품밟기의 원리 중 하나인 오금질과 굽슬르기는 각종 건강운동에 도움이 된다.

이상은 품밟기에 내재된 다양한 측면의 제한된 연구로, 차후 품밟기와 경기규칙과의 관계, 품밟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총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송덕기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전승자의 구술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추가적이고도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택견의 본질적인 원형복원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계간 태권도(1973). 銀髮의 태권도인, **태권도 7·8호 합본호**. 대한태권도협회.
- 김명곤(1977). 팽겨쳐진 민중의 무술 태권. **뿌리 깊은 나무 9월호**. 뿌리 깊은 나무.
- 김정운(2002). **태권**. 서울: 밝터.
- 김정행, 김상철, 김창룡(1977). **무도론**. 서울: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 김영만(2010). 민속경기와 전통무예로써 택견 수련체계의 발전 방안.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김영만(2012). **택견 기술의 과학적 원리**.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 김영만, 김창우(2014). 택견(태권) 단체의 품밧기의 동선과 용어에 관한 연구. **대한무도학회지**. 16(1), 1-13.
- 김영만, 심성섭(2013). 수박, 수박희와 택견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2(2), 31-42.
- 김영만, 오세이(2010). 품밧기의 동작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1), 231-240.
- 알렌 백, 김대식 저, 김창우, 김수잔, 김동제, 이광호 역(2012). **실천무도철학**. 서울: 백산출판사.
- 근육사전(2013.). 대둔근의 중요성. 경미니의 아름다운 몸매만들기. 2013년 10월 12일 발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kaqhrudals&logNo=1501768470>.
- 도기현(1995). **우리무예 택견의 이해**. 택견계승회.
- 도기현(2007). **우리무예 택견**. 서울: 동재.
- 문예진흥원(1983). 택견. 문예진흥원, VTR.
- 박영길, 안정덕(2008). 신한승택견의 학습체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235-243.
- 박종관(1995). **전통무술 택견**. 서울: 서림문화사.
- 신현식(2008년 3월5일). 택견 원류 LA에 있다. 중앙일보.
- 안희웅(1984). 택견의 유래와 술기, 한국 전통무예의 재조명. **마당 7월호 35**, 144-153.
- 예용해(1964). 續人間文化財. 한국일보, 5월 16일, 7면.
- 예용해(1973).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102호: 택견. **문화재관리국**. 375-412.
- 오성근, 류지선(2010). 품밧기 유형에 따른 운동학적 변인과 지면반력 차이 분석. **한국운동역학회지**. 20(1), 57-65.
- 오장환(1991). **택견전수교본**. 서울: 영언문화사.
- 위키백과(2013.). 오금질. 2013년 10월 12일 발췌. <http://ko.wikipedia.org/wiki/오금질>.
- 이석호(1971). 살아있는 태권인 송덕기 옹. **태권도 가을호**. 대한태권도협회.
- 이승수(2008). 택견 관련자들의 태권도 인식에 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6), 51-63.
- 이승수(2011). 해방 이후 한국 전통무예의 근대화 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16(2), 29-46.
- 이승수(2012). 택견 기술 본대퇴기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1(5), 37-49.
- 이용복(1990). **한국무예 택견**. 서울: 학민사.
- 이용복(1997). **택견**. 서울: 대원사.
- 이용복(2005). **개정판 택견연구**. 서울: 학민사.
- 장경태, 정태운(2006). 택견 품밧기의 운동학적 분석. **대한무도학회지**. 8(1), 173-188.

택견(태권) 단체의 품밟기 원리에 관한 연구

정경화(2002). **택견원론**. 서울: 보경문화사.
정만영(2007). 택견 전수단체의 현황과 기예의 비
교. **한국택견학회, 무예연구(창간호)**. 1(1),
71-101.
정재성(2005). 전통무예로서 택견의 특성. 미간
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대학원.
정철수, 신인식(2005). **운동역학총론**. 서울: 대한미디어.
한국전통택견연구회(1985). 제1회 택견경기회.
VTR.
Daum 국어사전(2014년 06월 20일).

KBS(1984). 文化강좌 ‘선조의 수련세계’. KBS
VTR.

각 주

- 1) 고용우는 인터뷰(2013.10.10, 미국 LA)에서 송덕기는 택견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박양박수’, ‘박양서각’이라는 별칭을 언급하였다(김영만, 심성섭, 2013: 40).

ABSTRACT

A Study on the Principles of Pumbabgi in Taekkyon Organizations

Kim, Yeong-Man(Soong sil Univ.) · Kim, Chang-Woo(Yong in Univ.)

This study is on the principles of Pumbabgi (footwork) in different Taekkyon organizations and consists of literature reviews, interviews as qualitative investigation as analysis. The methods of this study included literature review and a qualitative case study incorporating interview and filmed material.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hree Taekkyon associations in Korea, the Kyulyun Taekkyon Association, the Korea Traditional Taekkyon Association, and the Korea Taekkyon Association, describe the principles of Pumbabgi with expressions such as "Gumsil", "Neungcheong", "Usseuk", and "Uzzul" whereas the Hyeonam Wuitdae Taekkyon Preservation Society describes it with the principles of "Gumsuluri" and "Heori Jaegi." Second, the three associations could have probably cited descriptions on Gumsil, Neungcheong, and Uzzul suggested in precedent studies by Ye Yonghae (1964), Taekwondoji (1971) and Kim Myeonggon (1977) that were conducted before Taekkyon was registered as an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of Korea. Third, while Pumbabgi moves in triple time, footworks of Babgi can change into duple or quadruple time. Fourth, the three associations in Korea use Ogeumjil, the extension and contraction of the ham, as the Pumbabgi principle, but Wuitdae Taekkyon uses the crotch and hip that are power zones of the body. Therefore Gumsuluri generates bigger hitting power than Ogeumjil. Fifth, the objectives of Pumbabgi are different according to game rules. While the Kyulyun Taekkyon Association sees it as offensive and defensive moves in the lower part of the body, the Korea Taekkyon Association considers it for Neunjirugi and Daejeop. This is likely to be a controversial issue as to the origin of Taekkyon. Sixth, Pumbabgi is the principle of "relaxing." Seventh, Pumbabgi is footworks to win over the opponent through offence and defence. Eighth, Ogeumjil and Gumsuluri, principles of Pumbabgi, are good exercise. In this regard, additional thorough studies to investigate and observe the oral explanations and movements of the successor of Song Deokgi, and the outcomes of such studies would allow us to come closer to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form of Taekkyon.

Key Words : taekkyon, martial arts, pumbabgi

논문투고일 : 2014. 10. 31

논문심사일 : 2014. 11. 21

게재확정일 : 2014. 12. 26